

문 “지방 희생하는 시대 끝내야” 안 “지역격차 해소 국정 과제로”

지방분권·시도지사협 토론회 참석 단일화 주도권 잡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9일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며 단일화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에 나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서 “지역격차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이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지역중심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 당시 ‘강한 지방과 행복한 시민’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지난 9일엔 ‘분권 국가와 균형발전사태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4대 특별전략에는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 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

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전략과 관련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도시지사협의회 및 토론회에 앞서 안 지사, 새누리당 소속 감광용 경북도지사 등 토론회 참석자와

안 지사가 이 자리에서 “후보들이

차기 국정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많이 힘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격차 해소로 그중 지역격차 해소는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정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안 후보는 이어 “또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서 지역에서 직장에 다니고 지역에 봉사하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인사정책을 펴 중앙에 진출한 지역 인재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 野 후보별 ‘맞춤형 전략’ 짚는다

“문, 실패한 친노 정권의 책임자” 거론

“안, 정치경험 전무 불안한 변화” 공세

새누리당이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 짜기에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후보 제안을 위한 큰 틀의 전략 기초를 유지하면서 상대 후보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전략은 전날 비전선포식을 통해 제시됐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집권, 신나는 대한민국 등이 키워드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론, 책임 있는 집권”을 내세워 야권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

라는 구호를 통해 박 후보의 강점인 신뢰·원칙의 이미지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과거사·단일화·정권교체 등 야권의 프레임에 정면돌파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문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실패한 친노 정권 책임자임을 집중 거론, 책임 있는 변화 대 무책임한 변화로 전선을 만들 방침이다.

또 안 후보가 링 위에 오르다면 정치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책임 있는 변화 대 불안한 변화 구도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은 단일후보에 대해

“문재인이나, 안철수나”라는 엇갈린 관측과 특설계산을 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문 후보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부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권 단일후보는 문재인 후보로 정해지는 수준만 남았다고 보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구태정치에 대응해 새정치를 선포할 박근혜 후보의 정권 창출은 정치·시대·리더십 교체를 의미한다”며 “분열·대립 정치에서 통합·화합 정치로, 부패한 하드파워 리더십에서 섬세하고 깨끗한 소프트파워 리더십으로 반드시 교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논란이 일고 있는 민중화가 홍성담씨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 하에게 거수경례하다’라는 제목의 유화. 유신 4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이 기획 전시한 ‘유신의 초상’에 전시되고 있다.

(평화박물관 홈페이지)

박근혜 출산 그림 논란 새누리 법적 대응 키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법적 조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평화박물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화박물관은 유신 4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전시 ‘유신의 초상’에 민중화가 홍성담씨가 그린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 하에게 거수 경례하다’라는 제목의 유화를 전시했다.

이 그림에는 환자복을 입고 수술대에 앉아 다리를 벌린 박 후보가 아이를 낳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의사가 들고 있는 아이는 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듯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대통령 권력 분산·검찰 권한 대폭 축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 3인 유력후보 대통령 당선시 정치권 변화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회동에서 공식 합의한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여야 대선후보의 정치색선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

문, 안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색선안은 국무총리 제정권 보장, 국회의원 공천 국민참여경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서 일치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확대, 국회의원 정수 조정, 중앙당 권한 축소,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나 중앙당 권한 축소, 중수부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공수처 대신 상설특검을 제시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여야는 공통으로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

한을 보장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총리가 기회균등위원회 검토를 거쳐 3배수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에게 제정을 하도록 했다. 문·안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정권·해임건의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또 장관에게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고 지연·확연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은 대통령의 권력형 인사개입 차단, ‘공직나누기’ 방지, 기득권과 연고의 배제한 인재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혁신=새누리당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및 권한 강화, 2천구회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무도동 무인급 원칙 적용, 의원연급 폐지,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등을 약속했다.

국회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문제에서는 야권도 비슷한 입장이다. 야권은 나아가 영리목적 겸직 금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비심의회 설치,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의원 정수 조정안까지 제시했다. 국회 예결위의 상설안은 공통적 내용이다.

◇정당 개혁=여당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권을 폐지하는 한편, 국회의원 공천도 중앙당 입김을 최소화하고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도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주고 기초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언했다.

◇권력기관 권한 축소=핵심은 검찰 개혁 문제다. 여당은 현재의 특검을 보완, 상설특검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이고 야권은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공수처 신설을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민사회 연대 위한

원탁회의 구성 제안

민주 광주 선대위, 안측에

민주통합당 광주시 선대위 시민캠프 공동대표단(공동상임대표 최철·이강)은 19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과 시민사회를 상대로 ‘시민연대’를 위한 광주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캠프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협력과 동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단일화 이후 두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름답게 결합하고 뜨겁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캠프는 이를 위해 안 후보 측인 광주 진심캠프와 시민사회에 가칭 ‘시민연대’를 위한 광주 원탁회의를 즉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호남의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고 관찰하기 위해 광주 원탁회의 내에 ‘호남정책협의체’를 만들고 투표 당일까지 “아름다운 승리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정치색선실천협의회’ 제안 문·안 수용

정치권 ‘자정’ 노력 결실 맺을까

새누리당 정치색선특위가 야권에 제안한 ‘정치색선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이 19일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

정치색선특위 안대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제안한 이같은 기구 구성에

대해 문, 안 후보 측은 이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안대회 위원장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쪽에서 기구 구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연락이 오면)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안 후보가 정치색선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또는 대선후보 3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두 후보측에 전직 국회의장, 전직 정치개혁특위 위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중립적 인사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여야의 색선을 검토한 뒤 공통안이 도출되면 후보들이 이에 대한 약속과 다짐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예시: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4,600,000원
농협중앙회	70,0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더블유저축	8,0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솔로몬저축	15,0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총이자	36,035,000원

리모델링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6,750,000원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씨티은행	40,000,000원
지역농협	50,0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총이자	14,450,000원

5년~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3기 수강생 모집!!

제3기/나도 명강사가 될 수 있다.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면접능력향상과정

■대상: 취업준비생, 직업훈련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면접준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 합니다. 본원에서는 학생들의 학과별 다양한 대응분야를 기획·설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적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면접능력향상과정 등 취업캠프를 맞춤 지원합니다.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사정상·급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사무실전용)

- 14층 건물 중 2층 코너 50평
- 주차 3대 무료, 대형 주차장
- 실내인테리어 2000만원 소요
- 용자 5천만원 정도 가능
- 현, 보 1천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 급매가 8500만원(시세 1억1천만원)
-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능

문의 : 010-3605-5000
010-4667-93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